

다크 모드의 아이콘: IWC 샤프하우젠,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세라타늄® 공개

2026년 2월 26일, 샤프하우젠: IWC 샤프하우젠이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세라타늄(Portugieser Chronograph Ceratanium®)을 선보입니다. 다크 모드로 진입한 이 아이코닉한 크로노그래프는 IWC 자체 개발 소재 세라타늄®이 사용된 올 블랙 컬러로 선보이며, 가벼움과 견고함이 결합된 동시에 독특한 다크 마감 처리가 특징입니다. 세라타늄® 케이스, 크라운, 푸셔 외에도, 블랙 애플리케이션과 핸즈가 장착된 블랙 다이얼과 동일한 컬러의 러버 스트랩이 특징입니다.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세라타늄®은 1,500피스 한정 수량으로 출시됩니다.

1998년 첫 선을 보인 이후,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는 IWC 샤프하우젠의 포르투기저 컬렉션에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감각을 더해왔습니다. 수직으로 배열된 두 개의 서브다이얼과 ¼초 눈금이 표시된 이너 플랜지를 갖춘 이 크로노그래프는 스위스 럭셔리 워치메이커 IWC 샤프하우젠을 대표하는 가장 인지도 높고 인기 있는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명성에 더해 IWC는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한 감각에 창의적인 이미지를 더한 세라타늄® 소재의 올 블랙 버전을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IWC 샤프하우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크리스찬 크noop (Christian Knoop)은 “깔끔하고 순수하며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아름다움을 지닌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는 처음 출시되었을 때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IWC에서 개발한 가장 혁신적인 소재인 세라타늄®이 적용된 고유한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올 블랙으로 구현된 이 모델은 지금까지 IWC가 선보여 온 포르투기저 디자인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해석입니다. 크로노그래프의 순수한 형태를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시선을 집중시켜 고유한 실루엣에서 눈을 땔 수 없게 만듭니다.”라고 설명합니다.

1,500피스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는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세라타늄®(Ref. IW371631)은 세라타늄® 소재로 제작된 직경 41mm의 케이스와 크라운, 푸셔가 장착됩니다.

IWC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세라타늄®은 티타늄의 가벼움과 견고함이라는 특성에 세라믹과 유사한 수준의 단단함과 스크래치에 강한 특성을 결합해 만들어낸 최첨단 소재입니다. 특수한 티타늄 합금을 가마에서 고온으로 소성하여 만든 세라타늄®의 또 다른 특징은 다크하면서도 메탈릭한 느낌을 주는 독특한 마감입니다. 크로노그래프의 올 블랙 디자인은 블랙 다이얼, 블랙 애플리케이션, 블랙 핸즈로 한층 더 완성됩니다. 아라비아 숫자 애플리케이션, 인덱스, ¼초 눈금은 블랙 다이얼 위에서 미묘한 입체적 요소로 표현되었습니다. 블랙 러버 스트랩은 스퀘어 패턴이 적용되어 시계의 통일감 있는 외관을 완성합니다.

견고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세라타늄®은 견고함, 신뢰성,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IWC 자체 제작 69355 칼리버로 구동됩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위해 탑재된 컬럼 휠 제어 메커니즘은 전환 시퀀스의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며, 버튼을 누를 때 확실한 조작감을 제공합니다. 무브먼트에는 오토매틱 더블 폴 와인딩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메인스프링에 46시간의 파워리저브가 안정적으로 저장됩니다.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세라타눔®

REF. IW371631

특징

기계식 무브먼트 – 분, 초 단위의 크로노그래프 기능 – 스몰 해킹 세컨즈 – 투명한 사파이어 글래스 케이스백

무브먼트

IWC 자체 제작 칼리버	69355
주파수	28,800 vph / 4 Hz
주열 수	27
파워리저브	46시간
와인딩	오토매틱

위치

소재	세라타눔® 케이스, 블랙 다이얼, 블랙 핸즈 및 아플리케, 세라타눔® 핀 버클이 장착된 블랙 러버 스트랩
글래스	사파이어, 돔형, 양면 반사 방지 코팅
수압 저항 기능	3 bar
직경	41 mm
두께	13.1 mm

IWC 샤프하우젠

IWC 샤프하우젠은 스위스 북동부에 위치한 샤프하우젠에 기반을 둔 스위스 럭셔리 워치의 선구자로, 포르투기저부터 파일릿 워치 컬렉션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의 컬렉션을 전개하며 엘레강스함은 물론 스포티함까지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1868년, 미국 출신의 엔지니어이자 워치메이커였던 플로렌타인 아리오스토 존스(Florentine Ariosto Jones)에 의해 설립된 IWC는 시계 제작 과정에 뛰어난 기술적 노하우, 훌륭한 장인 정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최첨단의 기술을 접목한 시계를 선보입니다.

150년이 넘는 역사에 걸쳐 IWC는 워치메이킹과 컴플리케이션의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했으며, 독창적인 크로노그래프와 캘린더로 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티타늄과 세라믹을 처음으로 사용하며 소재 개발을 선도하고 정밀한 기술과 특별한 소재의 시계 케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시계 브랜드의 대표주자인 IWC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투명성, 순환성, 책임의 철칙을 바탕으로 IWC는 세대에 걸쳐 전해질 수 있는 타임피스를 가장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생산하기 위해 제작 과정, 유통 과정, 애프터 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혁신을 거듭합니다. 또한 IWC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글로벌 기관과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세라타늄®의 이미지는 press.iwc.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 문의

IWC 샤프하우젠

홍보 부서

이메일 press-iwc@iwc.com

웹사이트 press.iwc.com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iwc.com

Facebook facebook.com/IWCWatches

YouTube youtube.com/iwcwatches

LinkedIn linkedin.com/company/iwc-schaffhausen

iwc-schaffhausen

Instagram instagram.com/iwcwatches

Pinterest pinterest.com/iwcwatches

#IWCwatches